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연구작품논문

일상 속 여행을 통한 풍경 이미지의  
표현 연구

- 본인의 「Wood Lithography」 작품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권 소 윤

# 일상 속 여행을 통한 풍경 이미지의 표현 연구

- 본인의 「Wood Lithography」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권 소 윤

# 인 준 서

권소윤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이 논문은 대학원 석사학위의 청구 논문으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제작한 'episode' 로 명명된 일련의 연작들을 중심으로 작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작품 속 표현기법 및 조형적 특징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우리는 일상을 통해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고 여기서 얻어지는 형상들과 감정, 정서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며 자신의 내면적 정신세계를 구축해 간다. 그리고 미술작품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예술이라는 영역을 통해 새롭게 재현되고 창조된다. 일상에서 마주한 대상은 각자의 새로운 시선을 통해 새로운 감성으로 인식되고 그것을 재현함으로써 일상은 예술의 소재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은 예술가들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인간의 삶과 기록의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들의 삶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삶의 근거로서 바탕이 되는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한 나의 발자취가 새겨진 공간에 주목함으로써, 일상과 함께 내가 체험하고 인상 깊게 남은 장소들에 대한 기억을 작업으로 더 확장시켜 재편집한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현대의 대도시 풍경에서는 조금 벗어난 작고 아담한 도시 외곽의 풍경에 주목한다. 현대도시의 이미지는 자연과는 달리 수직적이며 직선적이고 모던한 콘크리트 건물들로 채워져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모습을 띤다. 본인은 도시의 정형화되고 직선적이고 단조로운 풍경에서 벗어나 현대 도시에서 사라져 버린

소박한 삶의 여유로운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별하거나 자극적인 것이 아닌 삶의 공간이 되는 도시의 풍경을 중심으로 일상 속에서 작가가 체험하고 깊은 인상을 준 풍경들에 주목하며, 그것을 기억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장소 하나하나에 시선을 집중시켜 의미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사진 이미지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시·공간의 사진을 넓은 화면 위에 재조합하는 콜라주(collage)기법과 드로잉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공간구성을 창출한다.

주된 조형요소로서 사용되는 선적 요소는 섬세한 묘사와 공간을 새롭게 구현하는 일차적인 표현으로서 드로잉적 성격을 강화 시킨다.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 모노톤은 과거의 회상, 아련한 그곳의 추억, 그곳에서 느꼈던 당시의 감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임을 말하고자 하며, 작품 속 풍경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Wood Lithography 판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예술 표현에 있어 일상과 기록의 의미에 대해 논하고, 예술로서 기록적 이미지에 대한 조형적 표현 연구와 함께 작품 도판을 통해 작품 설명을 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내용적 측면 .....	3
1) 일상의 재해석을 통한 예술 .....	3
2) 기억으로서의 미술 .....	8
(1) 일상 속 기록의 개념 .....	8
(2) 기록으로서의 풍경 이미지 .....	10
2. 조형적 측면 .....	14
1) 공간과 여백의 구성 및 표현방법 .....	14
2) 드로잉과 선 .....	17
3) 색채 .....	21
4) Wood Lithography .....	25
3. 작품 설명 .....	28
III. 결론 .....	47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1] episode-그곳으로 다시...III, 42x104cm, Wood Lithography, 2009

[작품2] episode-그곳으로 다시...I, 77x53cm, Wood Lithography, 2008

[작품3] episode-Japan I, 60x90cm, Wood Lithography, 2008

[작품4] episode-Nikko, 42x97cm, Wood Lithography, 2009

[작품5] episode-가회동 골목길, 42x95cm, Wood Lithography, 2009

[작품6] episode-europe II, 77x55cm, Wood Lithography, 2009

[작품7] episode-europe, 45x91cm, Wood Lithography, 2008

[작품8] episode-Japan III, 40x80cm, Wood Lithography, 2008

[작품9] episode-그곳으로 다시...II, 55x108cm, Wood Lithography, 2008

[작품10] episode-Japan II, 52x95cm, Wood Lithography, 2009

# I. 서론

우리는 일상을 통해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습득한 형상들과 감정, 정서 등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며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사건들을 직·간접적인 경험과 느낌을 통해 자신의 의식 속에 저장한다.

현대에 와서는 무엇보다도 ‘일상’이라는 의미가 예술이라는 영역에서 중요한 소재로 자리 잡아 더욱 더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예술은 인간의 삶과 기록의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들의 삶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은 예술가들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일상 속 경험과 대상, 기억의 이미지들은 예술가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드러내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복잡하고 숨 막힐 듯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풍경을 상상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화 된 도시 풍경은 이전과는 달리 뻣뻣하게 들어찬 직선적이고 단조로운 고층 건물들과 자동차도로가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은 특별하거나 자극적인 현대 도시 풍경이 아닌 삶의 공간이 되는 여유로운 도시의 풍경과 그것을 중심으로 일상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인상에 깊이 남은 풍경들에 주목한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버스정류장에 앉아 무심하게 바라본 그곳, 길을 잘 못 들어 헤매다 발견한 장소와 여행하며 만나는 낯선 도시는 항상 낯익은 풍경이 아닌 전혀 다른 심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장소 하나하나에 시선을 집중하고 의미를 담아내는데 목적이 있다. 그것을 작품의 소재로서 사용하여 그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며 비움과 채움에 초점을 두어 주관적으로 재구성하

고자 한다.

조형적 측면에서 바라본 본인 작품은 화면의 공간구성에 있어 치밀한 실제적 풍경이 아닌, 비움과 채움이 함께 공존하는 인상에 의존한 생경한 시각의 제시를 통해 본인의 내적 감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작품의 주된 조형요소로서 선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풍경을 재현하는 일차적인 표현으로서 드로잉과 함께 중요한 표현요소가 되고 있으며, 작품에서 사용한 모노톤의 색채는 본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풍경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본인의 작품을 내용과 조형적 측면에서 연구 분석하기 위해 본문 1장에서는 일상과 기록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고 기억의 기록 행위를 통한 풍경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본문 2장과 3장에서는 1장의 연구 과정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의 도판을 제시하고 작품의 내용 및 표현방법들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작품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II. 본 론

### 1. 내용적 측면

#### 1) 일상의 재해석을 통한 예술

일상이란 말이 미술에 있어서 중요한 인식의 대상이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일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19세기 후반기에 1,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미술사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이것은 한계의식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서구 문명의 발전이 더 이상 보편성을 갖지 못하며 발전과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이 더 이상은 희생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한다.<sup>1)</sup>

이렇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상이라는 반복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일상’이라는 의미가 예술이라는 영역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예술에 있어서 일상은 중요한 소재로 자리 잡아 무한한 모티브가 되었으며, 이러한 일상은 현대 미술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술은 일상, 즉 삶에서 갖게 되는 생각과 느낌 등을 조형요소의 원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일상성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한스 페터 투른(H.P.Thurn)에 의하면, 어원학적으로 ‘일상’이란 개념은 그리스어 ‘카테메란’(catemeran)과 라틴어 ‘코티디아누스’(cotidianus)로부터 유래하는데, 그 뜻은 ‘반복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

1) M.마페졸리,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 박재환 역, 일상성 일상생활 연구회, 1995, p.43.

“일상성은 우선 보잘 것 없다. 지루한 임무, 모욕적인 인간관계, 언제나 반복되는 사물들과의 관계 등 요컨대 궁핍의 존속이고 부족함의 연장이며 비천한 인생의 반복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성의 비천함의 이면에는 온갖 창의성과 기쁨, 쾌락도 들어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것도 지루한 어느 일상적 하루 중이었고, 위대한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는 것도 어느 권태로운 일상 속에서 일 것이다.” 2)

위의 내용과 같이 일상은 인간이 살아가는 평소의 반복적인 생활을 의미한다. 일상은 자기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관계를 가짐으로서 이뤄가는 삶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많은 생각과 활동을 하면서 얻어진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감정과 정서를 형성해 나간다.

장 그르니에(Jean Grenier)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책에서는 다양한 일상적 테마의 분석을 통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닌 일상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낸다. 즉, 우리는 여행을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고독, 침묵, 비밀들에 의해서 그들로부터 유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와 존재 방법들은 각각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표면적인 목표를 벗어나는 의미를 지닌다. 이들에 대한 분석은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스타일과 심지어 예술작품 자체에까지 이르는 느껴질 수 없는 통로를 드러내 준다.” 3)

본인 또한 예술은 인간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으며, 우리들의 일상은 예술과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은 예술가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며, 그러한 이유로 결국 보통의 일상마저 작업의

---

2)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 사랑, 2000, p.171.

3) Jean grenier, 「일상적인 삶」, 권오룡 역, 청하, 1988, p.13.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 작품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예술가에 의한 재현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재현은 우리의 명상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그 감정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의 증상으로부터의 추리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을 통하여 자각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예술 작품이라는 형식은 우리의 직접적, 정신적, 정서적 삶이 나타나는 역동적 형상들과 일치한다.<sup>4)</sup>

그리고 예술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한 활동으로 일상생활 내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예술가는 자신의 삶 속에서 겪고 느낀 바를 창조적이고 표현적인 형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sup>5)</sup> 또한 아놀드 하우저에 의하면 “인생의 의미와 인간의 조건 및 인간에게 어울리는 현존의 가치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자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6)</sup>

일상 속 예술은 미적 관심이나 미적 가치는 미술관 같은 특수한 곳에 한정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일상생활의 한가운데 늘 친숙하게 나타난다. 예술이란 그것이 미술관으로 옮겨지기 전에는 동굴이나 집안, 시장이나 사냥터, 예배하는 곳, 분묘의 위나 안 등에 그 생명을 지니고 있었다. 예술은 모든 삶의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부분이다. 궁극적으로 그러하며 흔히 그렇듯, 예술현상이 독립된 대상이나 활동으로 일어날 때에도 그것은 광범위한 일상 속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주 폭 넓게 나타난다.<sup>7)</sup> 다시 말해서 예술가의 창작활동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일상적 체험을 예술가 자신의 눈을 통해 조형화 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일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인은 특별하지 아니한 ‘평범한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여야

4) Susanne K. Langer, 「예술이란 무엇인가」, 고려원, 1993, p.36.

5) Virgil C. Aldrich, 「예술철학」, 오병남 역, 서광사, 1977, p.149.

6) A.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창작과 비평사, 1996, p.126.

7) 펠빈 레이더, 버트럽 제섬, 「예술과 인간 가치」, 김광명 역, 까치, 2004, p.149.

창의적인 작품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끝없는 고민을 한다. 하찮을 수도 있는 본인의 일상생활을 재조명함으로써, 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아주 사소한 것, 즉 내 주변의 현실적인 공간, 기억 속 공간에 나의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는 삶의 근거로서 삶의 바탕이 되는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나의 발자취가 새겨진 공간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일상과 함께 내가 체험하고 인상에 깊게 남은 장소들은 나에게 소소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소하지만 나에게서는 커다란 삶의 활력으로서 깊은 추억이 되며 이것은 기억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업으로 더 확장시켜 재편집한 나만의 공간 구성으로 제시된다.

본인의 작업은 현대 대도시 풍경에서는 조금 벗어난 작고 아담한 도시 외곽의 풍경을 담고 있다. 도시 이미지는 수직적이며 직선적이고 모던한 사각형태의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들로 채워져 있다. 도시 중심부의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 본 풍경은 자동차 도로와 보편적이고 균일한 건물들이 지배적이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고층 건물들과 수많은 아파트들은 삶의 배경이자 삶의 터전이다. 나를 포함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현재의 자본주의적인 도시를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도시적 삶에 위압감과 염증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점점 더 대도시화 되고 빠르게 변하는 도시에 살면서 우리의 일상은 더욱 더 복잡다단해져 그 안에서 삶을 살고는 있지만 고독과 불안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풍경을 꿈꿀 것이다. 본인은 종종 창밖을 바라보거나 버스 안에서 차창 밖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는 답답해 보이는 풍경들을 지우개질 해보기도 하고 고향의 나지막한 시골집 풍경과 여행 중 보았던 조그만 소도시의 따듯한 풍경, 마치 성냥갑을 일렬로 쭉 늘어놓은 것 같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아닌, 제각각이지만 저마다의 특징이 있었던 낯선 도시 속 골목 풍경을 떠올리곤 한다. 때론 도시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고향이 도시가 아닌 자연과 함께한 지방의 소도시인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해 한다. 더 없이 넓은 공간 속 위압적인 도시를 매일 마주치면서도 어릴 적 자주 내려가곤 했던 산과 들을 끼고 자리 잡은 초가집과 기와집, 나지막하게 들어선 주택과 논, 밭 사이로 좁게 난 길들을 아련하게나마 추억의 공간으로서 기억 속에 간직한다. 그 때문인지 도시를 벗어나 경험하는 소도시의 일상적 풍경은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느낀다. 그래서 아무런 계획은 없지만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어디를 가든 항상 사진으로 남기고 기억 속에 저장을 하게 된다.

나는 위에서 말한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의 한 부분으로 여행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우리들은 보통 쳇바퀴같이 굴러가는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만남에 대한 갈망을 느끼기 때문에, 공간을 느끼고 체험하며 즐기는 여행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여행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여행마저도 어느 덧 내 인생의 한 부분이자 일상이 되어버린다. 여행지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끼니때가 되면 식사를 챙겨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대신 열심히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며 밤이 되면 숙소에 돌아온다. 이것 또한 반복적인 생활이 되면서 낯선 곳에서의 일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여행을 하는 매순간마다 여행한 장소의 사람들이 사는 일상을 함께 누릴 수도 있으며 그곳에서의 생소한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일상을 체험 할 수 있다. 또한 여행은 “노동 못지않게 인생에 있어 가장 충실해야 하고, 자기의 삶을 생각하며, 사는 즐거움을 맛보고, 문자 그대로의 행복을 찾는 시간”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8)</sup> 더 나아가 작가인 본인에게 있어 여행은 자연스럽게 작업에 대한 생각과 함께 작품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작업의 소재를 직접 발로 찾아 눈으로 기억을 하고 사진으로 기록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여행을 마친 뒤 내가 여행했던 곳의 모습을 객관적인

---

8) 구자인, 「도시와 빈곤」, 제23호 한국도시연구소, 1996, pp.142-159.

이미지, 즉 사진을 통해 본인이 받은 인상에 따라 재구성 한다. 그리고 여행은 내 자신이 지내온 풍경과 시간적, 공간적 교류이며 조용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느끼는 삭막한 도시 풍경의 감성만이 아닌 여행하면서 보고 느끼는 그때 그곳의 감성을 표현하고 싶다. 물론 여행지의 화려함 보다는 소소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골풍경과 흐린 날의 스산함에 낯선 곳의 차가움을 먼저 마주한 푸른빛의 도시 풍경 등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것들을 작품으로 재현해냄으로서 그 순간을 기록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며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 얻어지는 낯선 일상을 본인의 일상 한 부분으로서 이야기 하고자 하며, 이러한 색다른 일상의 경험을 삶의 증거로서 그 기억에 대한 아련함을 기록하고 보존하고자 한다.

## 2) 기록으로서의 미술

### (1) 일상 속 기록의 개념

‘일상’이라는 개념을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면 평범함과 무료함의 반복만이 내재되어 있다고는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상을 통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형상들과 감정, 정서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낀다. 그리고 ‘일상’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감정을 느끼는 삶의 과정이며 개인의 고유한 주관적 가치관과 생활 방식, 태도,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식체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시간은 아무 의미 없이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채워가는 밀도 있는 시간인 것이다.<sup>9)</sup>

---

9) 박송희, 「일상적 사유의 기록을 통한 조형적 표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8, p.3.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경험과 관계를 통해 수많은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고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기억을 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하찮을 수도 있는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일상적 삶에 큰 의미를 두고 기억되며, 그 기억들은 현재의 나를 만드는 큰 역할이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의 과정을 통해 자아를 확립해 나가는데 이러한 과정은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일상 속에서 겪는 경험을 통해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삶을 인식하게 된다. 이때 우리들은 자아를 형성하는 내제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 중 하나가 기록이다. 기록이란 인간만이 가지는 독창적인 사고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록은 일상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 할 수 있는 표현의 수단이다. 따라서 기록은 일상에 바탕이 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경험을 통해 내 자신 속에 내재하고 있는 삶의 존재를 인식하고, 현재의 나를 찾고 결정지을 수 있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간의 의지적인 행위인 것이다. ‘기록(記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로 정의된다. 또한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대해 그 정보와 지식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현재에 되살려 필요한 작업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sup>10)</sup> 여기서 본인은 사진이라는 기억의 기록 행위를 통해 소유하고 싶은 대상의 이미지 포착과 주변에 흔히 보이는 풍경을 작품의 대상으로 삼고 더 나아가 본인만의 반복적인 기록 행위를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기록은 행위와 활동 그리고 기능을 반영한다. 인간의 행위는 보통 진행됨과 동시에 사라지지만, 기록의 행위는 흔적을 남기게 된다. ‘기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라진 인간의 행위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행위들을 기록으로

---

10) Robert J. Sternberg , 「인지심리학」, 김민식, 손영숙, 안서원 역, 박학사, 2005, p.137.

남겨 경험을 축적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즉, 기록한다는 것은 행위나 대상의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잊혀져가는 기억에 비해 기록의 저장능력은 매우 무한하다. 기록은 기억을 회상할 수 있게 연상되어 머릿속에서 잠시 사라져있던 기억들을 순간적으로 떠올리게 하므로 기억을 펼치는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록은 기억을 담는 그릇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기억이다.

또한 기록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시간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기록이 반영하는 행위와 활동은 시·공간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시간의 질서 속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행위와 활동을 반영하는 기록 역시 시간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기록은 행위와 활동의 시간만을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 기록의 가치와 의미가 변하게 된다. 기록에 담겨진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기록을 둘러싼 맥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은 시간과 상호작용의 특성을 갖게 된다.<sup>12)</sup>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기억을 지속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기록은 삶의 내용을 영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기억의 확장 공간을 형성해 보고자 한다.

## (2) 기록으로서의 풍경이미지

예술가는 일상생활에서 본 대상을 단순한 물리적 자극이 아닌 의미를 두고 바라보고 관찰하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대상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경험하는 모든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며, 주관적으로 경험한 기억 속의 이미지들을 화면 안에 옮겨낸다. 예술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삶을 감성적으로 표현하기도하며, 이렇게 예술가에 의해 경험된 일상의 기억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상징화를 거쳐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시각화된다.

---

11) 박송희, 「일상적 사유의 기록을 통한 조형적 표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8, p.5.

12) 최광호, 「기록의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2, p.10.

본인도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일상 속 풍경을 단순히 물리적인 자극만이 아닌 의미를 가지고 바라봄으로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본인의 감성이 묻어나는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일상의 소재와 개인의 기억에 초점을 두고 공간에 관한 기억을 다시 시각화하는 과정으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과거나 혹은 현재에 한번쯤 보고 느꼈을 감성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시공간을 보여주고자 한다. 막스 베크만이 “우리의 존재 가운데서 신비스러운 것을 형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현실 그 자체인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본인 작품은 관람자의 시각에서 보면 누구나 쉽게 마주할 수 있을 풍경을 현재의 기억 속에서는 빛바랜 사진처럼 흐려져 버린 지난 과거의 풍경과 여행 속 그리운 그곳을 새롭게 형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서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에서 더 확장되어 여행 또한 일상의 한부분이 될 수 있으며, 작가로서의 여행은 자연스럽게 작품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여행의 기억을 제대로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고, 주위의 자연과 사물, 사람을 만나면 그것을 붙들고, 소유하고 싶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것을 제대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카메라이다.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함으로써 어떤 장소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어느 정도 달랠 수 있다.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에 등장하는 영국의 미술 평론가 존 러스킨<sup>13)</sup>은 어떤 장소의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그것을 제

13) John Ruskin 1819-1900: 영국의 미술평론가, 사상가 화려한 예술비평가의 길과 험난한 사회사상가의 길을 차례로 걸었던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지식인. 런던에서 태어나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문학을 공부하다가 옥스퍼드 대학교로 가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관심은 예술을 비롯하여 문학, 자연과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으며, 작가이자 화가로서도 많은 작품을 남겼다. 뛰어난 재능으로 당대 예술평단의 일인자로 명성을 떨치던 중, 어두운 사회경제적 모순을 목도하고 불혹의 나이에 사회사상가로 변모한다. 후에 간디, 톨스토이, 버나드 쇼 등은 러스킨을 두고 ‘당대 최고의 사회개혁자’ 라고 평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 「근대화론」, 「베네치아의 돌」 등의 예술비평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를 비롯

대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며 그 방법은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 아름다움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의식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쓰거나 그것을 그림으로써 예술을 통하여 아름다운 장소들을 묘사하는 것’ 이라고 했다.

풍경의 진정한 소유는 그 요소들을 살피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식적 노력에 달려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일상 속 주위의 대상들을 잘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상들이 기억 속에서 얼마나 오래 간직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것을 얼마나 의도적으로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다. 카메라는 보는 것과 살피는 것 사이의 구별, 보는 것과 소유하는 것 사이의 구별을 흐려버린다. 카메라는 진정한 지식을 선택할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어느새 그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을 잉여의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카메라는 사진을 찍음으로써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장소-예를 들어 숲-를 제대로 느끼고자 하면 ‘즐기가 뿌리와 어떻게 연결될까?’ ‘안개는 어디서 올까’ ‘이 나무는 왜 저 나무보다 색이 짙을까?’ 등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sup>14)</sup>

이렇듯이 사진, 즉 테크놀로지는 아름다움과 기억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존 러스킨은 사진이 풍경을 찍는 사람들의 다수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계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한다.<sup>15)</sup>

그리고 호크니의 주장에 의하면 사진은 회화처럼 시간의 층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회화와 같은 깊이를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인간의 심층적인 감각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사진의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6)</sup> 본인도

---

한 경제학 저술, 「참깨와 백합」, 「티끌의 윤리학」 등의 대중강연집이 있다.  
14) 알랭 드 보통, 「여행의 기술」, 정영목 역, 이레, 2004, pp.305-306.  
15) 위의 책과 같음, p.303.  
16) 강기훈, 「도시공간의 랜드마크를 통한 회화적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2006, p.13.

존 러스킨, 호크니와 같이 이러한 사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사진이라는 기록의 매개를 통해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멈춤을 새로운 시각으로 일상 속 그곳의 시간을 담아두고자 한다.

사진은 하나의 단편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사진이라는 매체는 사실 여러 현대 작가들에게 중요한 모티브와 소재가 되며 회화와 사진을 대등한 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진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한순간의 불잡힘이라 할 수 있으며 공간적으로 보았을 때 지극히 일부분만 찍힐 뿐이다. 그리고 본인에게 사진은 기억을 저장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추억하는 대리만족일 뿐이며, 이러한 매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수많은 사진들을 보며 현실을 그저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 작업을 하면서 현실을 너무 정직하게 사진처럼 베껴내는 것은 풍경의 아련한 기억을 진정으로 소유하는 방법은 아니란 것을 느낀다.

“사진이 시각의 즐거움 빼앗아 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진이 가지는 한계를 조금이나마 털어내고자 이미지만을 차용하고 다른 시간, 다른 시점, 다른 장소의 사진을 넓은 화면 위에 재조합하고 드로잉을 거쳐 평면의 작업으로 보여준다. 사진 찍기에 따라 진부해 보이는 도시 풍경 사진을 조합하여 콜라주(collage) 하고 장소가 가지는 느낌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공간과 여백의 구성, 색채의 사용을 통해 ‘기계의 눈’ 이 아닌 ‘인간의 눈’ 을 거친 풍경 그림으로 바꾸고 있다.

## 2. 조형적 측면

### 1) 공간과 여백의 구성 및 표현방법

공간이란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개념으로 3차원성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의 개념은 각 학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 될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는 시각이나 촉각 등의 작용에 의해 인식 될 수 있으며, 철학적으로는 경험적인 공간과 선형적 공간으로 구별되어 인식되고 있다. 이리 공간성의 개념은 예술에서도 나타나며 이것을 공간예술이라 한다.<sup>17)</sup>

따라서 예술에 있어서의 공간은 물리적, 철학적 의미의 공간이 아닌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경험적 공간 즉, 예술적 공간을 의미한다. 회화에서의 예술적 공간은 객관적인 3차원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물체와 그것을 지각하는 인간 사이의 상호 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며, 공간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그들의 지각세계를 심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회화를 무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sup>18)</sup>

본인의 작품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간의 구성은 작품형성의 배경이 된 풍경 이미지를 통해 느낀 본인의 고유한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본인만의 시각으로 화면 안에서 비움과 채움이 공존하는 공간을 구성한다. 본인 작품 속 공간은 일부가 희미하게 사라지고 서로 다른 공간과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표현하고 일반적인 원근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생략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 전체적인 현실의 사실성을 유지하면서 웬지 모르게 느끼게 되는 낯선 풍경 이미지의 재현으로 감상자들에게 색다른 시각을 보여주며 새로운 감정으로 상상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7) 이선희, 「내적 풍경화에 나타난 공간표현 연구」, 한남대학교, 2009, p.8.

18)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홍익사, 2003, pp.218-302.

작품에서 표현되는 여백은 조금 어수룩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직 덜 완성된 표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테두리 안에 꼭 찬 풍경이 아닌 마치 우리의 전통 회화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화면의 구성을 시도하였다. 요란하지 않고 조용하며 적당한 공간 구성을 표현하고자 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의 정서로 다가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백은 빈 공간으로 남겨둔 것처럼 보여 지기 쉽지만, 잘 처리된 여백은 잘 그려진 표현보다도 더 표현하고자하는 풍경의 의미를 함축하며 똑같은 조형적인 가치를 가진다.

여백은 화면공간과 대상과의 지속적인 관계로 보이는데, 곧 시간성을 확보하고 외부와 연결되어 대기의 흐름이 느껴지는 것 같은 공간의 특성을 갖게 한다. 따라서 여백의 처리는 보다 많은 상상의 세계를 낳게 하고 암시하거나 함축하는 시각적, 조형적 표현기술이기도 한다. 결국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면 속에서의 여백은 완성이 아닌 시발점으로서 의미를 지닌다.<sup>19)</sup> 그리고 고정된 시점에서의 통일된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펼쳐 나가는 시점을 보여주며, 구획지은 듯 보이는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즉, 여백이란 무의 공간인 것이 유로서 표현이 안 되어서 남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깊이감과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연관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sup>20)</sup>

본인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여백은 한국적인 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미를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한국 미술의 기본적 특성은 자연주의와 철저한 자기의 배제에서 요란하지 않고 조용하고 적막하다. 색과 무늬 면적을 줄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재료의 특성을 살피서 자연과 부딪치지 않는 조화를 만들어 낸다.”<sup>21)</sup> 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이는 요란한지 않은

19) 심상훈, 「한국화에 나타난 여백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1992, p.53.

20) 이상현, 「선으로 그린 무위의 시공간」, 중앙대학교, 2008, p.6.

자연스러움을 추구함에 있어 본인의 작업에서 강조하고자하는 부분이자 본인의 미의식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작업에서 보여주는 분위기와도 맞아 떨어진다. 또한 계획되어진 여백의 확보로 인해 절제의 미가 느껴질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절제의 미학이 갖든 미니멀리즘적인 성격은 전통 회화에서 여백과 선, 건축에서 보이는 간결미, 도자기의 형태와 색, 담백한 색채관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요란하지 않고 부드러우며 조용함이 가져다주는 고요함은 내면의 깊이를 더욱 심오하게 한다. 한국의 미에서 나타나는 조형의식에서는 순수함이 배어 있고 정감과 향수를 불러일으킨다.<sup>22)</sup>

이러한 조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본인의 작업은 개인적으로 가 보았던 기억의 장소를 하나씩 끄집어내 새로운 풍경의 모습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것은 삶의 체험과 경험, 감성적인 단상들로 재구성된 풍경화를 통한 형상화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매우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시작된다.

주변의 일상적인 풍경 이미지와 여행 속 도시풍경을 사진 이미지를 이용해 외관적으로 보여 지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묘사하는 사실적인 풍경에서 벗어나 조금은 즉흥적이며 때론 입체적인 조형 공간으로 표현을 통해 내적 감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다양한 풍경 이미지들을 재조합하고 걸러내어 만들어진 본인의 작품은 재현의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억 속 그때 그 장소의 형상들을 마치 사진들을 펼쳐놓고 부분부분 원하는 것만 오려붙인 것처럼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도시 속 건물과 공간, 공간과 또 다른 공간을 이어주는 선의 요소를 통해 공간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작품은 보이는 그대로의 풍경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현

---

21) 김원룡, 「한국미의 연구」, 열화당, 1978, p.44.

22) 김혜민, 「나뭇결을 살린 자연 이미지의 심상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6, p.9.

존하는 대상 자체의 이미지를 간직함과 동시에 나의 기억과 상상을 보태어 현실세계를 벗어난 듯한 낯선 세계를 동시에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작품은 재현적 풍경과 함께, 주관적이고 독특한 나 자신만의 풍경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2) 드로잉과 선

예술의 생명은 그 작품 안에서 볼 수 있는 표현성에 있다. 본인은 작품의 표현에 있어 단순히 대상의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작가의 감정을 드러내는 자유로운 드로잉을 함께 보여주고자 한다.

현대 미술에서 드로잉은 회화의 매우 중요한 표현 요소이다. 드로잉은 작가의 감성을 바탕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형식에 덜 얽매인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이미지의 변형과 화면 구성의 변형은 본인이 가지는 감성의 표현하는데 매우 적절하다. 또한 드로잉은 직접적으로 감성을 표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행위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표현과는 다르며 감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그 어떠한 것보다 매우 솔직하다. 이렇듯이 드로잉의 역할은 일종의 리얼리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작가를 둘러싼 삶의 현실성과 진실을 어떤 장르보다 극명하게 반영한다. 그것은 어떤 대상을 재현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며 때로는 심상 속의 잔상을 그려내기도 하고 혹은 무의식의 심리적 표현수단이 되기도 한다.<sup>23)</sup>

본인의 작품 속 풍경은 똑같이 재현하기 보다는 기록되어진 사진을 이용하여 현실과 일상의 풍경을 마치 포토 콜라주(collage) 하듯 재조합하여 판 위에 간단한 스케치를 한 뒤, 유성의 재료인 솔리드 마커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면

---

23) 국립현대미술관 편저, 「드로잉의 새로운 지평」, 열과알, 1995, p.5.

을 칠하고 자유로운 선을 그리며 또 다른 유성 재료 중 하나인 니스를 이용해 붓으로 번짐의 효과나 흘리기 기법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손의 생동감 있는 움직임으로서 감성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드로잉을 위해 활용하는 솔리드 마커와 니스가 가진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특성은 과거의 여행 속 풍경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솔리드 마커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마치 크레용과 같은 거칠면서도 즉흥적인 질감인데, 이러한 느낌은 드로잉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힘 조절을 통해 명암과 원근법을 표현 할 수 있고 얼룩이나 번짐의 효과도 나타낼 수 있어 기억 속 그곳의 풍경을 아련한 감성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했다. 직접 판 위에 유성 재료로 드로잉을 해야 하는 Wood Lithography 판법의 특성상 즉흥적인 드로잉을 하면서 판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므로 작업을 하면서 드로잉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석판과는 달리 나무를 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정을 하기위해 나무판 위에 정착된 유성 드로잉 재료를 세모칼 조각도와 스크레퍼(삼각뿔 모양의 오목판화용 조각도)를 이용하여 조각하거나 긁어내는 것을 통한 우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액체 성분인 니스를 가지고 자유로운 붓 자국의 느낌도 살릴 수 있었으며 흘리고 뿌리기 효과를 주어 우연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여 지는 얼룩과 번짐, 낙서와 같은 흔적들은 시간성을 강조하기 위한 드로잉의 표현방법으로서 본인 작품들의 시점은 과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과거 속 그곳을 회상함과 동시에 그때의 추억을 새로운 기록으로 재해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판위에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드로잉과 함께 본인의 작업에서는 선을 이용한 작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솔리드 마커와 니스, Oil bar를 이용한 드로잉은 작품에 보이는 넓은 면의 표현에 주로 이용되었다면 선을 이용한 표현은 풍경 이미지를 좀 더 섬세하게 묘사하며 정적 속에 미세한 움

직임을 유도하고 설계도면에서 보는 것 같은 공간구성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조형요소이다. 그리고 본인의 작품에서 보이는 도시 풍경은 나뭇결과 함께 선적 형태를 통하여 간결하게 드러나고 있다.

보편적으로 예술에 있어서 선은 가장 순수한 조형요소로서 대상을 재현하는 일차적인 표현수단이며 가장 기본적인 조형 언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은 대상의 윤곽을 표현하는 드로잉에서 시작되며, 기본적인 조형요소로서 ‘선을 긋는다.’ 라는 시각예술로서의 원초적인 표현행위, 즉 존재에 대한 확인행위의 의미를 지니는 것에서 선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시작된다.<sup>24)</sup>

또한 우리는 형태에 따라 대상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은 선으로 이뤄지므로 작품에 있어서 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선을 이용해 작품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으며 의미와 상징성을 전달 할 수 있는 표현의 수단이 된다. 본인은 작업에서 판위에 직접 표현된 드로잉 위에 칼로 선을 새겨 넣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작품을 설명하고자 하는 선이 가지는 특징은 풍경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각도를 이용해 판을 조각하여 인쇄를 하였을 때 하얀 선으로서 이미지를 이루는 방법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석판을 이용한 Lithography와는 달리 나무를 판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목판화가 가지는 특성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며 손으로 그리는 선의 느낌과 함께 조각도로 새긴 선의 힘과 운동감도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목판화 작품에서의 선은 직접적인 드로잉과는 달리 나무에 새겨지는 강한 칼 선을 특징으로 최대한 단순화되며 거칠고 직선적이다. 즉 드로잉에서는 보기 힘든 차가운 직선적인 느낌을 가지며 조각하는 순간의 힘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선의 굵기와 길이는 색면의 보조적인 역할로서 색면을 구체화 시키

---

24) 이일, 「현대미술의 시각」, 미진사, 1985, p.21.

며 손맛이 느껴지는 선 드로잉과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선묘가 가능하다. 작품 속 이미지의 형상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선은 그어지는 순간 나무의 결과 함께 수없이 겹쳐지고 뭉쳐져 무수히 많은 특성을 만들어 내며 이러한 선의 형성은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나무의 수많은 결은 또 다른 선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져 자유로운 곡선과 리듬감 있는 부드러운 선의 흐름이 되어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 주고 마치 끊임없이 이어지는 듯 화면 밖으로의 연속성과 울동감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작품 안에서 보여 지는 가늘고 짧은 무수한 조각선과 함께 먹지를 이용한 단순한 선의 드로잉은 풍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사용된 먹지의 단순한 선은 Wood Lithography에서는 표현하기 힘든 가늘고 섬세한 흑색의 선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먹지로 그어진 검은 흑선은 작품 속 도시 풍경을 스케치하며 잔잔한 선의 묘사를 통해 풍경 속 건물들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 시키며 허공을 가로지른다. 작품 속에 종종 등장하는 전봇대와 허공을 가로지르며 얽혀있는 전선줄은 도시 풍경 속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며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전선줄의 표현은 공간 간의 침묵을 깨면서도 서로 다른 시·공간과 이어져 무한한 공간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완성되어 나온 작업 위에 먹지를 대고 그린 전선들은 손이 가하는 힘에 따라 진하고 흐리게 색의 농담이 가능하다.

먹지를 통한 선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움은 작업의 조용하며 담담한 분위기와도 잘 어우러져 가늘고 잔잔한 절제된 선의 묘사는 여백의 화면에서 공간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고, 선과 함께하는 여백은 매우 중요한 회화 표현 요소가 된다.

### 3) 색채

회화에서 색은 강력한 표현력을 갖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회화에 있어서 작품을 표현하는 바탕 공간 속에서의 색채는 작품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이다. 특히 현대에서는 인간의 감각과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는데 색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인간의 감각 중에 가장 민감한 것은 시각이며 이 시각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색채이다. 이렇듯 색채는 형태와 더불어 표현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과 사건에 대한 정체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물의 표현에서 색채 하나만으로 그 성격이 결정될 수 있다. 색채는 직업적인 화가나 디자이너만이 다루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거의 매일 색상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가령 우리가 사소한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색상은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된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색상들이 차지하는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sup>25)</sup>

인간은 색채를 보면서 끊임없이 인식작용을 하고 그에 따른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색채는 이런 감성적인 느낌을 표현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가 설명해주지 못하는 모든 것을 전달하면서 ‘암시적’ 이고, ‘은유적’ 인 힘으로 우리의 눈을 자극시킨다. 색채는 화면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예술작품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객관적 혹은 사실적으로 재현한 표현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암시적이며 추상적인 방법으

---

25) 데이비드A. 라우어, 스티븐 펜탁, 「조형의 원리」, 이대일 역, 예경, 1985, p.230.

로 작가의 감정과 정신세계를 재현하기 때문이다. 본인 작품 또한,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색채를 택하게 되었으며 주관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된다. 예술은 이해보다 ‘감동’을 요한다. 감동을 요하는 예술은 작가가 직접 체험했었던 경험을 자신의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한다.<sup>26)</sup>

그렇기에 모든 예술작품 속에는 색을 통해 작가가 표현하고 전달하려는 의미가 숨어있다. 본인 역시 과거 회상적인 기억의 기록과 일상의 경험을 보여주고자 선택한 조형요소 중 하나가 색채이다.

예술 작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색채는 대상의 재현을 중시했던 사실주의적인 회화에서 색채를 대상의 형태를 위한 부차적인 요소로 생각했지만, 오늘날의 색채는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 순수한 감정으로 이끄는 정서적인 역할과 인가의 정신적인 면을 자극하는 언어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인간은 색채를 보면서 끊임없이 인신작용을 하고 그에 따른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색채는 이런 감성적인 느낌을 표현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가 설명해주지 못하는 모든 것을 전달하면서 ‘암시적’이고 ‘은유적’인 힘으로 우리의 눈을 자극한다.<sup>27)</sup>

이처럼 색채는 작가의 풍부한 잠재력을 자극시키고, 작업 속에서 공간의 구성과 형태만으로는 충분히 보는 이에게 전달하기 힘든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의 표현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작품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대상의 표현적 속성을 보여주는 데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색채는 매우 필연적인 요소이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색채는 풍경화의 사실적인 재현을 위해서만이 아닌 감성적인 언어로서 구사하고자 한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색채는 주로 단색조이다. 기억 속 그곳의 풍경은 과거라는 시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26) 유경화, 「색채이미지와 배색을 활용한 회화적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2006, pp.1-2.

27) 정영숙, 「회화에 있어서 내면적 색채와 허상에 대한 고찰」, 덕성여자대학교, 2004, p.19.

추억 속의 아련함과 그리움, 낯설음 등의 감정을 보여주기에는 일반적인 사진 속 그곳의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보다는 청색, 검정, 갈색 등의 모노톤으로 표현하는 것이 느낌 표현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본 작품에서 색채는 강렬함 보다는 은은함이 묻어나는 감성적인 색감을 선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무채색 혹은 튀지 않는 색채를 사용하며 미세한 색채의 변화를 통해 공간적인 깊이감과 자연스러운 공간의 연결을 표현하고자 한다.

본인에게 있어 색채의 선택은 공간의 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작품에서 보여 지는 여백과 공간의 구성은 한국적인 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란한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 담담하고 절제된 색은 선택하게 된 이유이며 단지 색상을 표현하기 위함이 아닌 작품 전체에서 보여 지는 분위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작업에 따라 조금씩 색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작품1] episode-그곳으로 다시...III. 에서는 포항 여행 중 한 포구의 작은 마을 풍경을 따뜻함으로 인식하여 색의 사용에 있어서도 작품 전반에 갈색을 사용하게 되었다. 과거의 기억, 안락함, 따뜻하고 편안한 이미지의 감성을 표현하기에 갈색은 가벼워 보이지 않고 동시에 깊이 있어 보인다. 작업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파스텔 느낌의 색채들을 넣어줌으로서 시각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작품6] episode- europe II. 에서는 채도가 낮은 청색을 전체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청색은 차가움, 오묘함, 신비스러움, 우울함의 표현을 위해 선택한 색조로서 차갑고 낯선 느낌으로 기억되어진 유럽여행 중의 한 도시 풍경을 묘사하기에 적합하다. 처음으로 가 본 유럽의 흐린 날씨 속에서 마주한 고풍스런 옛 도시들은 어두운 청록 빛을 띄었고, 때문에 그 멋진 풍경들을 마주하면서도 오히려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쓸쓸함이 더욱 크게 다가왔

고 그와 함께 모노톤의 감성으로 기억된다.

본인의 작품 episode sires를 살펴보면 검정색과 남색 등의 채도가 낮은 모노톤이 주로 색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검정색은 형태를 이루는 강력한 표현 방법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로 채워진 풍경들은 현재와의 거리감을 표현해 주기 위해 선명하고 뚜렷한 흑백 사진과 같이 원색보다는 무채색이나 혼색을 사용하며 이미지의 흐려짐과 얼룩으로 시간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에 부분적으로 당시 기억 된 풍경 중 유난히 눈에 띄었던 색을 부분 잉킹하는데, 자칫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모노톤의 이미지에 재미를 주기위한 역할로서 사용된다.

사진으로 기록되지만 그저 사진파일이 아닌 감성이미지로서 읽혀지길 원하기 때문에 화려한 색채는 배제하고 흐릿해진 기억에 따른 색과 그 표현으로서 이미지의 지워진 흔적의 표현과 얼룩 등을 통해 시간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색채의 사용과 표현을 통해 시간이 경과한 여행의 감성과 일상 속 본인이 기억하는 그때 그곳의 이미지들을 잘 그려 낼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색채를 통해 감상자는 풍경의 이미지를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와 같은 색을 통한 표현으로 과거의 기억 속 그곳을 현재의 기록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색채가 단순히 대상의 재현의 역할에서 벗어나 작품 속으로 시선이 이끌리게 함과 동시에 주관적인 감정 표현 매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색면 회화에 있어서 색채는 시각적인 자극에 의하여 순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역할을 하기도 하며, 자율적 세계를 한층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sup>28)</sup>

---

28) 유경화, 「색채이미지와 배색을 활용한 회화적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2006, p.26.

#### 4) Wood Lithography

본인의 작품에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조화될 수 있는 화면의 요소로서 나무판의 질감이 갖는 재료적인 특징을 이용하였다. 시간이 경과한 과거의 기억 속 그곳의 풍경과 여행의 흐릿해진 아련한 기억에 따른 감성의 표현을 위한 판재로서 나무의 결을 드러내고 목리와 옹이가 주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목판화는 따뜻한 감촉을 풍기며 한국 사람들의 부드럽고 온화하고 진실한 마음씨가 그대로 들어있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다정스럽다. 아무런 저항을 느끼지 않고 그 속에 빨려들어 가게 한다. 우리를 그 따뜻한 사랑으로 붙들고 차가운 데가 없다.” 라고 목판화에 대한 서술과 같이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오래된 느낌, 추억, 쓸쓸함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나무가 주는 거친 느낌과 은은함은 작품 속의 이야기와 의도하려는 감정을 만들기에 좋은 역할이 된다.

나무마다 제각기 생김새가 다른 나이테, 목리, 옹이, 나뭇결과 같은 외적인 이미지들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우며 이런 재질감에 느낄 수 있는 풍부한 자연감은 예술적 형태로 승화시키기 충분한 가치를 지니며 또한 친숙한 감동을 부여한다.

작업을 구상하면서 먼저 나무의 질감을 화면 안의 구성 요소로서 활용될 수 있게 전체적인 구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 채색에 있어서도 나뭇결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나무판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나무를 판재로 선택함과 동시에 그에 적합한 판법으로서 ‘오자쿠 세이시’<sup>29)</sup>가 고안한 Wood Lithography를 사용하는데, 평판의 대표적인 판법으로서 유성의 어떤 재료로도 표현할 수 있고 자칫 가벼워 보일 수 있는 드로잉

---

29) 오자쿠 세이시: 1934년 도쿄출생, 60년 도쿄예술대학 졸업, 전 오쿠타마 미술대학교수.

이미지를 판이라는 매체를 통해 좀 더 진지하게 보이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Wood Lithography는 판화가 오자쿠 세이시가 뜻밖의 계기로 개발한 기법으로서 최근에 와서 제자 중 이 기법을 사용하여 훌륭한 판화작품을 창출하는 작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Lithography를 대신할 기법으로서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는 판이 목재이지만 판면을 도사액<sup>30)</sup>으로 단단하게 하면 잉크가 스며들지 않아 판이 망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Lithography를 응용하여 나뭇결을 보수성이 있게 만들어 유성 잉크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Wood Lithography의 시작이었다.

그 후, 학생이 우연히 가져온 ‘솔리드 마커’라는 강한 유성크레용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고품의 페인트 같은 것으로 판에 드로잉을 하였을 때 정착력이 매우 강력해서 까다로운 제판 작업을 하지 않고, 드로잉 한 표면에 아라비아 고무액을 바르는 간단한 에치<sup>31)</sup> 작업만으로도 제판 과정을 마칠 수 있다. 그 위에 인쇄 잉크를 잉킹 한 후에 곧바로 찍어내는 것이다.<sup>32)</sup>

Lithography와 Wood Lithography를 비교해 보면, 종래의 Lithography는 현재 거의 구입이 어려운 석판석이나 전문 업자가 표면 처리한 알루미늄 판을

---

30) 도사액: 명반을 탄 물에 아교를 첨가한 메꿈제. 화구의 번짐이나 종이의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Wood Lithography에서는 나무판의 뒤틀림 방지와 함께 나뭇결이 더 잘 드러나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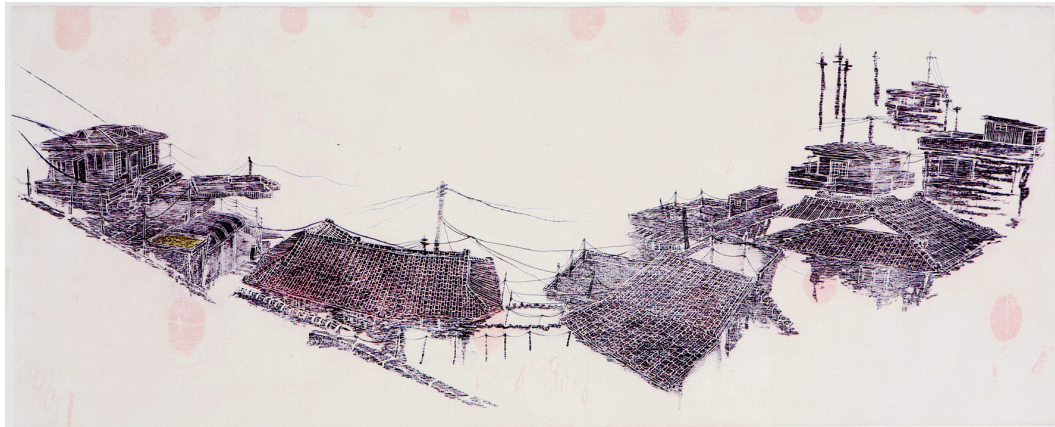
31) 에치: Lithography과정 중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드로잉이 끝난 판에 기름 성분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동시에 이미지가 없는 부분에는 수분을 흡수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산이 강하게 작용하여 요철이 이루어지는 오목판에 비해 석판에서의 에치의 목적은 드로잉 된 부분과 여백과의 차별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석판 위에 에치액을 칠하면 드로잉 된 부분은 산이 드로잉 재료의 지방 성분과 반응해서 드로잉 된 이미지를 판면에 깊숙이 침투시켜 물에 반발하고 이미지를 제외한 부분은 아라비아 액의 고무 성분이 흡착돼 물을 끌어당기는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이다.

32) 월간미술(3월호, 통권414호), 판화기법강좌- 목판 리도그래프 제1회, 일본: 산아트 발행, 2010년, pp.124-127.

필요로 한다. 그러나 Wood Lithography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베니어판 또는 피나무를 사용한다. 또, Lithography는 판에 그렸던 그림을 ‘제판(인쇄를 위해 판을 만드는 일)’ 하는 공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석판 전용 프레스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 기법은 전용 프레스기가 없어도, 목판화에 사용하는 바렌을 사용하거나, 또는 ‘발’로 눌러서도 인쇄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Wood Lithography의 판재가 목판이므로 적당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프레스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인쇄가 된다.

Lithography의 판재인 석판석이나 알루미늄 판이 없어도 목판에 도사액을 칠하면 석판석이나 알루미늄 판의 판면과 같은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목판에 솔리드 마커와 니스같은 정착력이 강한 유성재료로 드로잉을 하면, 석판을 이용한 Lithography의 번거로운 ‘제판’ 공정을 거치지 않고 판재에 인쇄 잉크를 칠하여 그대로 인쇄할 수 있다. 게다가 목판에 조각도로 새기는 것도 가능하므로 목판화의 표현과 조합도 가능하다.

### 3.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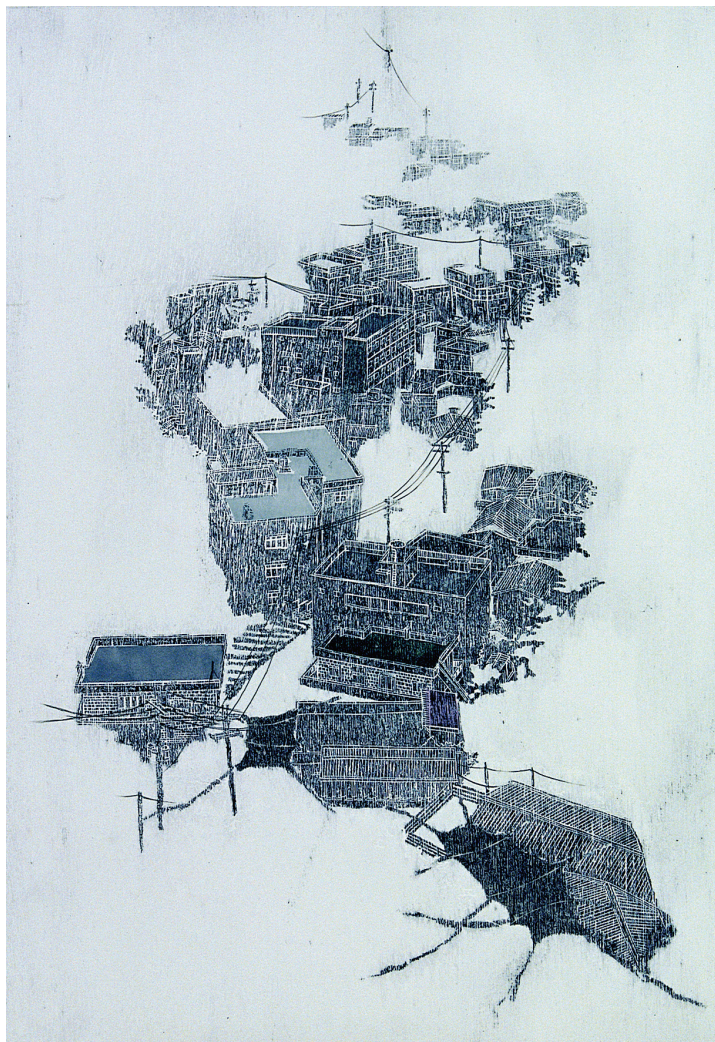
【작품1】 episode-그곳으로 다시...III, 42x104cm, Wood Lithography, 2009

【작품1】 episode-그곳으로 다시...III, 42x104cm, Wood Lithography, 2009

2009년 새해가 막 시작되었을 무렵 가족들과 함께 포항을 찾았었다. 가족들과 매년 이맘때쯤 가게 되는 그곳은 쌀쌀한 바다 바람에도 불구하고 주황색과 파란색 기와집들 그리고 좁게 난 골목길들이 기와를 엮은 돌담으로 이어진 모습 때문에 항상 푸근하고 편안한 인상으로 기억된다. 언덕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바다 너머로 비춰오는 따가운 햇살에 빛을 받아 더욱 활력을 느끼게 한다. 이 마을 앞으로는 바다가 있어 탁 트여있지만 작품에서 바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보았을 때 인상적이었던 주황색 기와가 엮어진 집을 중심으로 펼쳐진 작고 소박한 시골마을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질서정연한 삶의 모습을 기억에서 떠올렸기 때문이다.

작품의 밑바탕에 나무의 웅이가 잘 드러난 판재를 이용해 밑판을 찍고 그 위에 이미지가 올라가 판을 올리는 형식을 취한다. 공간 안에 마치 사진과 노라마같이 이어진 마을은 지붕의 표현만으로도 시골의 풍경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듯이 면 드로잉을 한 것 위에 가는 조각도로 섬세하게 지붕을 묘사한다. 따뜻한 색조를 사용하여 낮 시간 대임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파스텔 색조를 사용해 여유롭고 잔잔해 보이는 한 낮의 마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밑바탕의 색감과 함께 보이는 나무의 웅이는 햇살에 눈부셔 반짝거리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며, 화면 안에 떠다니는 나뭇결과 목리는 마치 몽롱한 기억이 상기되는 듯한 향수를 자극하는 감성의 모티브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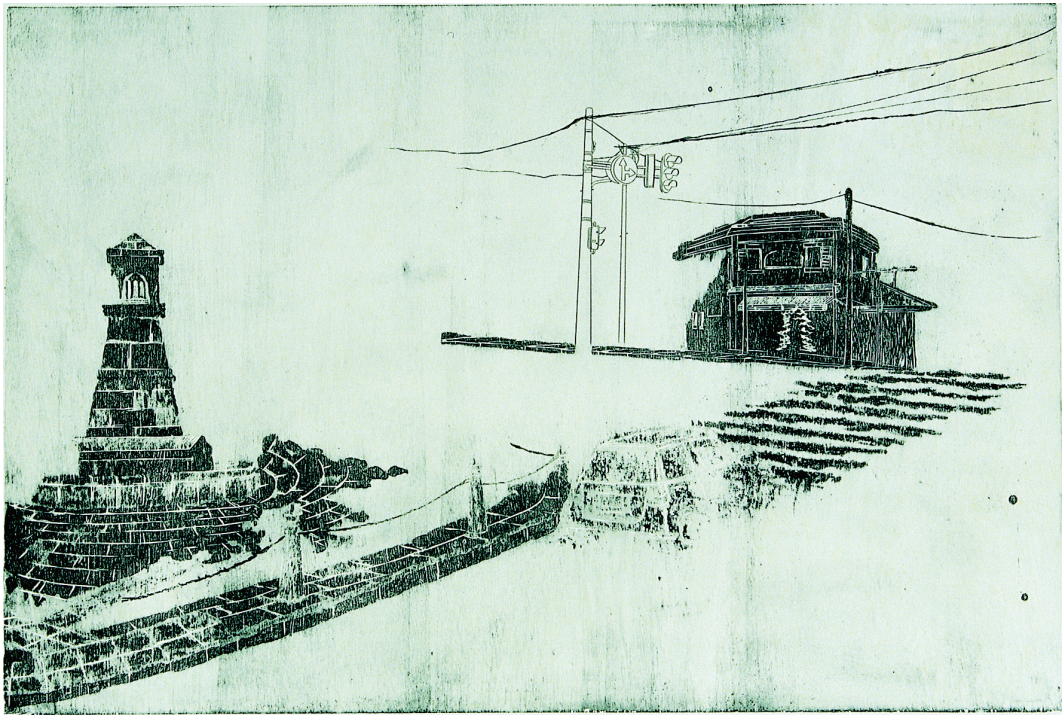


【작품2】 episode-그곳으로 다시...I, 77x53cm, Wood Lithography, 2008

【작품2】 episode-그곳으로 다시...I, 77x53cm, Wood Lithography, 2008

울릉도는 산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그래서 이곳은 육지의 마을 풍경과는 달리 마을이 길게 굽이굽이 형성되어 있다. 어딜 다니더라도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도로가 나있어 다니기가 쉽지 않아 이곳에 있으면서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꽤 불편하다. 도시 같으면 가까울 거리도 산길을 따라 빙빙 돌아 다녀야 한다. 하지만 울릉도를 한눈에 내려다보기 위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푸른 녹음과 함께 어우러진 울릉도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드넓은 평지 하나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곳이지만, 크게 S로 난 길을 중심으로 조그마한 아파트들도 보이고 옹기종기 주택들과 학교 등 나름대로의 소도시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새삼 놀란다. 그리고 이곳은 어디든지 둘러봐도 나무와 산이 뺄뺄이 우거져 있어 서울의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건물 숲과 직선적인 자동차 도로로 둘러싸인 것과는 무척이나 대조적이다.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물 외각의 표현이 마치 얼룩이 있거나 지워진 것 같은데 마을 곳곳의 나무들을 비워내 마을을 이루고 있는 나지막한 건물들로만 온전히 공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묘사와 여백의 흐름을 통해 산줄기를 따라 마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화면을 보았을 때 시선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데, 이것은 판을 잉킹할 때 힘의 조절과 스펀지로 판 위의 불필요한 잉크를 닦아내는 과정을 통해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듯하게 보일 수 있도록 색의 농담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한여름 날의 그곳은 어느 도시의 폭폭 찌는 듯한 무더위와는 달리 시원한데 아마 이곳의 산과 나무가 주는 푸름이 한 몫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당시 이곳에 대한 인상을 차가운 푸른 색조로서 표현하였다.



【작품3】 episode-Japan I, 60x90cm, Wood Lithography, 2008

【작품3】 episode-Japan I, 60x90cm, Wood Lithography, 2008

일본의 북쪽에 위치한 오타루는 조금 분위기가 색다른 도시이다. 아직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진다. 작은 항구와 좁은 언덕길을 따라 늘어선 제각기 다른 모양의 작은 상점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도시 생활에선 찾아보기 힘든 여성스러운 프랑스 풍의 건물들과 거리의 이국적인 풍경들로 인해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곳이다. 당시 인상 깊었던 예쁜 유리 공예 상점과 여행 중 잠시 쉬어가던 벤치가 있던 탑이 있는 그곳의 풍경 사진을 콜라주(collage)하여 화면을 재구성 하였다.

화면의 구도를 살펴보면 기존의 원근법은 무시되어 기억 속 대상을 나열하고 있다. 사진을 이용하지만 기억 속 그곳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치 꿈꾸는 듯 가장 너리에 깊숙이 박혀 있던 대상만을 표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다 으스러져가는 듯 흘러내리고 희미해지고 칼로 막 긁어낸 듯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느낌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작품의 밑바탕이 되는 나무 판재 또한 거친 결이 살아있는 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당시 장소가 가졌던 고풍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색을 배제하고 단색으로 표현하며, 잉킹을 하는 과정에서 드로잉 한 이미지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결이 잘 표현 될 수 있도록 배경도 해면스펀지를 이용해 잉크의 양을 조절 하였다.



【작품4】 episode-Nikko, 42x97cm, Wood Lithography, 2009

【작품4】 episode-Nikko, 42x97cm, Wood Lithography, 2009

도쿄 첫 느낌은 서울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차도 많고 화려한 빌딩도 많아 크게 인상적이지 않다. 하지만 1시간정도 기차를 타고 그곳에 다다르자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마치 시골마을 같았던 그곳은 익숙한 내 동네에 있는 것 같은 친근감과 함께 그곳을 거닐던 느낌은 보통의 일상처럼 매우 편안했다.

조그만 기차역을 빠져 나오면 역 앞에 위치한 마을버스정류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어지는 등글게 들어선 식당과 과자 가게, 소박한 상점들이 총총히 늘어서 있다. 주위엔 사람들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한적한 니코는 지극히 평범한 동네 풍경이지만 도쿄의 복잡함에 시달리던 나에게 모든 것이 두근거렸다.

아기자기한 가게들과 작고 알록달록한 간판, 차 없는 거리, 좁지만 소담스럽게 꾸며놓은 골목을 천천히 산책하며 일상처럼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다.

파노라마 같이 넓게 펼쳐진 화면 구성을 위해 마을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이용해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고 이어 붙여 새로운 장소로 재편집하였다. 일렬로 나열된 풍경을 통해 이곳의 건물 형태를 엿볼 수 있으며, 낮은 건물과 건물 속 간판, 작은 자동차 등의 소소한 풍경은 향수어린 느낌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소도시의 풍경은 화려하지만 위압적인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갈망의 표현이며 한적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통해 도시 생활 긴장감에서 해방하고픈 마음을 보여주었다.



【작품5】 episode-가회동 골목길, 42x95cm, Wood Lithography, 2009

【작품5】 episode-가회동 골목길, 42x95cm, Wood Lithography, 2009

서울의 가회동은 조용하고 한가로운 시골집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도심 한복판의 억압적이고 건조한 환경에서 벗어난 이곳은 전통적인 한옥 가옥들이 많아 도심지이지만 비교적 조용한 주택지를 형성하고 있다. 골목길 주변으로는 높은 빌딩이 없어 답답하지 않고 시야가 탁 트여 있어 시원한 느낌이다.

소박함 가운데 풋풋한 정취가 살아있는 작품 속 그곳은 작고 아담한 한옥들이 좁은 골목길을 주고 마주하고 있어 고즈넉함과 여유로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담장 너머로 길게 늘어뜨려진 담쟁이덩굴과 집 앞에 쪽 늘어선 크고 작은 화분들을 통해 소박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담장 밖으로 보이는 날렵한 한옥 지붕은 도시에서만 자라온 나에게 옛것의 정취를 느끼기에 더없이 충분하다. 골목의 풍경을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 일렬로 나열된 풍경이 아닌 마치 카메라의 어안렌즈로 바라본 것과 같이 건물들을 화면 안에 재구성하였다.



【작품6】 episode-europe II, 77x55cm, Wood Lithography, 2009

【작품6】 episode-europe II, 77x55cm, Wood Lithography, 2009

높은 곳에서 멀리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의 처리를 위해 도시의 다양한 풍경을 재조합하여 구성하였다. 건물들마다 각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화면들을 다시 조합 하는 과정에서 드로잉과 색감을 통일 시켜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다. 기존 사진의 시각을 넘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장소로 새롭게 만들며 장소가 가지는 느낌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작품 속 건물들의 특징 중 하나인 지붕에 청록색을 부분적으로 잉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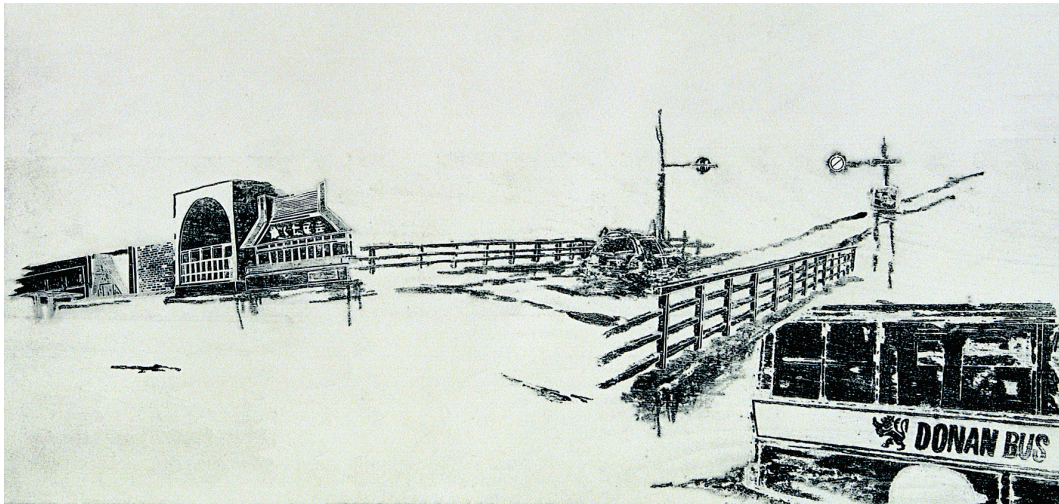
흐린 날씨의 쓸쓸함이 담긴 도시 풍경의 묘사를 위해 채도가 낮은 청색을 전체적으로 사용한다. 차가움, 오묘함, 신비스러움, 우울함의 표현을 위해 선택한 청색은 차갑고 낮은 느낌으로 기억되어진 여행 중의 한 도시 풍경을 묘사하기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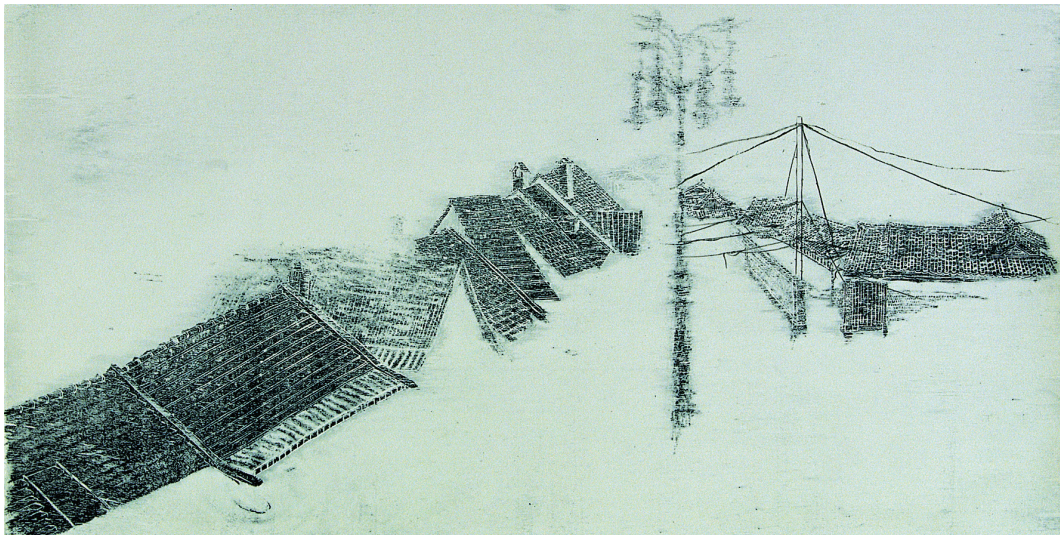
【작품7】 episode-europe, 45x91cm, Wood Lithography, 2008

【작품7】 episode-europe, 45x91cm, Wood Lithography, 2008

이 작품은 본인이 처음 해외여행을 갔을 당시 유럽의 기차역을 보고 느낀 풍경이다. 눈 덮인 설산을 뒤로 하고 산을 내려오는 길에 이용한 기차역으로 해질녘의 따듯해 보이는 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현대적으로 지어진 역사가 아닌 나무로 지어진 작고 아담하게 산등성이에 자리한 기차역은 마치 시골의 간이 역사처럼 정감 있어 익숙하게 다가오고 옛것을 떠올리게 하는 향수를 자극한다. 산을 내려오며 바라본 멀어져가는 그곳에서 받은 편안함은 따듯한 색조로서 표현되며 그곳을 떠나오면서 느끼는 아쉬움은 멀리 사라지는 듯 희미해져가는 풍경으로 표현하였다. 높은 곳에 위치한 기차역 뒤로는 탁 트인 전망이 한눈에 들어와 저무는 햇살에 따듯함으로 채워져 간다. 하지만 그 많던 관광객들은 오후가 되자 산을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산등성이에 홀로 있는 텅 빈 역사는 나에게 쓸쓸함을 안겨준다. 이런 쓸쓸함은 화면 안 공간의 구성에서도 보이는데, 화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어지는 시선처리와 함께 화면 아래, 위를 여백으로 연출하여 정적이며 적막한 모습을 극대화 시킨다. 너무 오래되어버린 당시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거친 나무의 결을 통해 당시의 감정을 표현을 나타내고, 작업을 할 때 종이의 선택에 있어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백색의 판화지가 아닌 인디언 핑크색의 판화지를 사용하였으며 그 위에 올라가는 잉크의 색도 마찬가지로 아련함, 추억, 쓸쓸함을 표현하기 위해 어두운 갈색톤을 전체적으로 사용한다. 거친 나무의 결 사이로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소박했던 그곳의 그리움의 표현이며, 단조로운 색과 여백의 구성을 통해 한적하고 여유로운 기차역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품8】 episode-Japan III, 40x80cm, Wood Lithography, 2008



【작품9】 episode-그곳으로 다시...II, 55x108cm, Wood Lithography, 2008



【작품10】 episode-Japan II, 52x95cm, Wood Lithography, 2009

【작품8】 episode-Japan III, 40x80cm, Wood Lithography, 2008

〔작품8〕은 화면 중심을 가로지르는 듯한 차도의 표현과 그 아래에는 화면 밖으로 막 지나간 듯 보이는 버스의 뒷모습, 화면의 왼쪽 편에 위치한 도로 위 휴게소의 일부가 잘려져 나간 풍경을 통해 작은 부분의 조합으로 어색한 긴장감과 함께 색다른 재미를 주며 원근법을 무시한 더욱 평면적인 작업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눈으로 뒤덮힌 듯 적막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사진 그대로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이 아닌 화면의 위, 아래를 분할하고 당시의 풍경 중 핵심적인 부분만을 조합하여 공간을 재구성하였다.

【작품9】 episode-그곳으로 다시...II, 55x108cm, Wood Lithography, 2008

작품 안의 지붕의 묘사만으로도 마을 풍경을 상상할 수 있다. 가로등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화면에서 머무르는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연출을 하며 각기 다른 나라의 건물 풍경이지만 사진의 재조합과 화면 안에 적절한 배치를 통해 낯선 느낌을 배제하고, 나지막한 단층 건물들이 소박하게 모여 있는 작은 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생략과 함축을 통해 침묵과 여운이 있는 풍경을 보여주며, 모노톤 색의 사용으로 담백함과 여유로운 분위기의 효과를 높였다.

【작품10】 episode-Japan II, 52x95cm, Wood Lithography, 2009

이 작품은 공간의 연출이 다른 작품과는 달리 고정적인 시선을 탈피하여 화면 중심에 횡단보도의 일상적인 풍경을 배치하고 대각선 위, 아래로는 그곳의

건물 풍경을 조합하여 재미를 주고 있다. 사진이 포착한 일반적인 풍경을 적절히 변형하고 재해석함으로써 공간의 한계성을 무시하며 전혀 다른 인상을 주어 보는 이들이 좀 더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더 극적인 화면을 만들기 위해 수직적으로 짝 뺀 전봇대를 강한 먹선으로 표현하며, 먹지로 허공을 가로지르는 전깃줄을 드로잉하여 공간과 공간들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 Ⅲ. 결 론

예술가는 대상을 자기만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관객들로 하여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감으로서 보는 이에게 잠재되어 있는 상상력을 자극한다. 예술에 있어서 도시, 풍경, 공간이라는 소재는 다각적 표현과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인은 작품 연구에 있어 대상을 정확히 포착해내는 사진이라는 객관적인 이미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고정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사진 속 이미지들을 걸러내고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판화작업으로서 표현하고 있다.

본인은 똑같은 도시 풍경 안에서도 차별화된 자신만의 심상을 떠올리게 되는 순간 그것을 또 다른 형태로의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의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삭막한 모습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 버린 도시 속의 여유를 작품 속에서 표현함으로써 본인의 새로운 풍경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작과정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작품에 사용한 조형적 요소를 기억의 이미지화를 드로잉과 선의 묘사를 통한 감성적 풍경으로의 표현에 관해 논의해 보았다.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해 작품을 제작의 동기와 내용적 측면, 표현 형식과 사용된 판화기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작품 속 미흡함의 발견으로 앞으로의 작업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간구성의 문제점을 본 연구를 발판으로 적극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실험적이고 좀 더 심화된 작업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작품 속 공간 구성에 있어 화면

안에서 느껴지는 여백의 흐름과 함께 이미지의 강·약을 살려 긴장감을 조성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흥미로운 작업으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상의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기훈. (2006). 도시공간의 랜드마크를 통한 회화적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구자인. (1996). 도시와 빈곤. 서울: 제23호 한국도시연구소.
- 국립현대미술관 편저. (1995). 드로잉의 새로운 지평. 서울: 열과알.
- 김원룡. (1978). 한국미의 연구. 서울: 열화당.
- 김혜민. (2006). 나뭇결을 살린 자연 이미지의 심상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데이비드A. 라우어, 스티븐 펜탁. (1985). 조형의 원리(이대일). 서울: 예경.
- 루돌프 아르하임. (2003). 미술과 시지각(김춘일). 서울: 홍익출판사.
- 멜빈 레이더, 버트럽 제섭. (2004). 예술과 인간 가치(김광명). 서울: 까치.
- 박송희. (2008). 일상적 사유의 기록을 통한 조형적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심상훈. (1992). 한국화에 나타난 여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알랭 드 보통. (2004). 여행의 기술(정영목). 경기: 이레.
- 오자쿠 세이시. (2010년 3월). 판화기법강좌- 목판 리도그패프 제1회. 일본 (산아트): 월간미술. 통권414호.
- 유경화. (2006). 색채이미지와 배색을 활용한 회화적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이상현. (2008). 선으로 그린 무위의 시공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선희. (2009). 내적 풍경화에 나타난 공간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이일. (1985). 현대미술의 시각. 서울: 미진사.
- 정영숙. (2004). 회화에 있어서 내면적 색채와 허상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 최광호. (2002). 기록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최종욱. (2000). 일상에서의 철학. 서울: 지와 사랑.
- A.하우저. (1996).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경기: 창작과 비평사,
- Jean grenier. (1988). 일상적인 삶(권오룡). 대구: 청하.
- M.마페줄리. (1995).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박재환). 일상성 일상생활 연구회.
- Robert J. Sternberg. (2005). 인지심리학(김민식, 손영숙, 안서원). 서울: 박학사.
- Susanne K. Langer. (1993). 예술이란 무엇인가(이승훈). 서울: 고려원.
- Virgil C. Aldrich. (1977). 예술철학(오병남). 경기: 서광사.

# ABSTRACT

A Study on the Image of Landscape Based on a Daily Trip  
-Focused on the work, 「Wood Lithography」

KWON SO YUN  
Dep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 s University

This is the master' s thesis, which first, explains the content performing engraving work around series of repeated cultivation called 'Episode' that the author has engraved from 2008 to 2009, and next, analyzes the expression technique and formative characteristic in these works.

We experience various things every day and establish our internal world of spirit as we feel the existence of our own through the shapes, emotions and sentiments which are obtained by the experiences. Also, based on a daily life, our lives have been reproduced and created by the area of art. The objects which we face with are recognized as a new emotion as we look at them with our eyes, and as we reproduce them in

an artistic work, our daily lives become the material of art. Therefore, a 'daily life' is not only the main issue that artists should work with, but also the thing that has a firm connection with our lives in a human life and history.

The beginning of the my works took a place in the center of my dwelling which had a trace of my footprints. As soon as I attempted to compose the memory into the works, it became not the lingering impression which stayed only in the memory but the edited space which was created by I works. In my works, I focused on the neat and little landscapes of out-of-town in getting out of a modern metropolis.

The images of modern city are vertical, straightforward and apart from nature; they are standardized and uniformed being filled with modern concrete buildings. However, being free from the standardized, vertical, straightforward and monotonous landscape of modern city, I tried to represent the margin which is disappeared in the modern society. I paid attention to the landscapes of city which gave her a deep impression in my life. Also, I tried to show the meaning of them by using photographs; apart from the simple memory, I focused on the different meanings of landscapes derived from the my life. To create a new and visualized space with the image of photos, I adopted not only the collage, the technique of combining two different dimensions into a expended screen, but also the drawing.

The main formative element of the works is to use lines; it is a

primary technique that describes the delicate and reproduced landscapes and reinforces the characteristics of drawing as well. Furthermore, I chose the limited color selection in my work to express the subjective emotion of past experience and Wood Lithography which is the effective engraving technique to express the landscapes of city.

In this study, I discuss the meaning of daily life. Along with the formative expression study for image of recording that worths as an art, I helps the comprehension of readers in adopting the work plate.